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8일 화요일 음 2월 7일 (14물)

한라칼럼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8℃, 낮 최고기온은 15-17℃로 예상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능지수 관심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美·유럽 은행권 불안에 신용경색 우려

“세계 성장률 위협요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 스위스(CS) 등 서방 은행들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대출 축소에 따른 신용 경색 우려가 커지고,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 로고와 미국 성조기. 연합뉴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6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은행권 스트레스가 얼마나 광범위한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경제를 둔화시킬지 불명확하다”면서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중소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미 당국은 SVB 등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하는 등 위기 전연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고대용 한리일보 논설위원실장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인 제주 4·3 75주년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통한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상당한 진척을 봤다.

하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은 요원하다. 4·3 특별법 개정과 정명(正名) 정립 등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

미완의 4·3... 특별법 개정·정명 정립 서둘러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는 4·3 특별법 보완이다. 잇을 만하면 4·3 왜곡 등 망언이 잇따라 튀어나와 유족과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서다.

늦게나마 4·3 왜곡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4·3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고 벌칙조항이 없어 4·3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도민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다른 핵심 과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짓는 정명 정립이다. 4·3 평화기념관에는 표면에 아무런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비석이 누워있는 채 전시돼 있다. 이른바 이룸을 짓지 못한 ‘백비’다.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이름을 짓지 못한 4·3의 현주소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량이 마련한 개헌안 전문에 명시될 정도로 민주화 운동으로 공인받았다. 반면 ‘제주4·3’은 그냥 ‘4·3’이다. 정부 4·3 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의 정의는 내렸지만 성격 규정이나 역사적 평가는 내리지 않았다.

정명운동으로 국민적 추인을 받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후보 시절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추가 진상규명으로 정명을 이뤄 백비를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마침 논의된 4·3 특별위원회도 정명을 향후 최대 과제로 꼽고 상반기 내 정명과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하기로 했다.

열린마당

장애인자동차표지 꿀팁



한성순 제주시 이도2동 주민복지팀장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도 사용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등록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이 신청서와 함께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표지는 명의 기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고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로도

난다.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본인이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등록한다.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나 등록 외국인인 전문의 진단을 통해 보행상 장애 진단이 이뤄진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대상이 된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한 경우와 발급된 차량을 수리·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차량을 임시로 렌트(임차)한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 된다.

자격이 없는 자가 표지를 사용하거나 위·변조된 표지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란다.

제주를 위한 노력, 환경 보호를 위한 변화



신서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의실을 살펴보면 책상 위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보다 텀블러가 울려져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거닐어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적잖이 볼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 유료를 판매할 때 자연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할 때 이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적용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대비용 증가와 고객과의 마찰이 문제로 제기됐다.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란다.

면서 그로 인한 손해 또한 업체가 지고 있기에 참여를 꺼리는 업체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도 불편함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타 브랜드의 컵도 반환이 되어 하나 실제로는 매장에서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잦아 동일 브랜드를 찾아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직까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많지만 희망 또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혜택·단일 소재의 표준 용기 제시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요즘엔 길거리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 제도와 그 취지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와 다음 세대에 온전한 환경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환경보호의 취지를 상기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Advertisement for Perca Calcium + Cocory Fertilizer, highlighting benefits like soil pH adjustment and nutrient supply.

Advertisement for Cocory Fertilizer, listing various nutrient types like PAA, Basillus, and PGA.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